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음 9월 28일) 제16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참 나쁜사람’ 27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가 전북도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쌀값 하락, 책임은 정부에 조선산업 고용 안정화를”

전북시군의회의원단협의회, 대책 촉구 건의

전북시군의회의원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가 쌀값 하락과 조선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촉구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2차 월례회의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습관 변화로 쌀 재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요구하는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농업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 쌀 생산조정제 도입,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군산지역 조선산업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업계 선박 수주물량 급감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는 군산지역 수출물량의 20%를 점유하고 약 6500여 명을 고

용, 지역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물량을 울산 본사 등으로 재배정,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크 가동중단 등 근시안적인 구조 조정이 아닌 최소한의 선박건조 물량의 지역적 안배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예규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자본력이 낮은 지역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은행이 공정하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지 전북시군의회의원단협의회장은 “정부는 농업인과 조선산업 근로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쌀값 안정과 조선산업 근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항도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조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명지 기자

전주시 도시경쟁력 ‘전국 최고’

전주시의 행정 혁신의 성과로 도시 경쟁력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7일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려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출범 첫해인 지난 2014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9위에 머물렀던 생산성평가에서 지난해 20위로 경총 뛰어오른데 이어, 올해는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매년 도시경쟁력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자체 생산성대상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 후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 공모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서

2014년 이후 매년 급상승
고질적 버스문제 해결
지방채 공모채로 전환
따뜻한 사회적경제 등서
우수한 성과 거둬

를 통해 고질적인 버스문제 해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방채를 공모채로 전환하여 채무액을 크게 절감하는 등 효율적 처리 방법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도시 조성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람중심 따뜻한 사회적경제 조성 등을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실제,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버스문제를 해결, 버스파업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고이울 지방채에 대한 저금리 차환발행에 성공해 재정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 전 지역 슬로시티 재인증 ▲U-20 월드컵 개막전 개최도시 선정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 수와 문화프로그램 수 등을 측정하는 지역문화지수 전국 1위 ▲아동친화도시·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

상 등의 요인으로 주민생활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정부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경쟁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아 왔다.

시는 지난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 1위를 차지했다. 7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정부3.0 협업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제9회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각각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연거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도시 스스로 삶의 방식과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이 서로 합의하고 실천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며 “전주 사람들! 정말로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기자

서남대 임의이사회 대학지킴이 총력

“남원 캠퍼스 존치
의과대학 정상화”

새롭게 구성된 서남대 임의이사회가 ‘대학 지킴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7일 서남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임의이사회(김화진 이사장)가 최근 회의를 열고 대학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서남대 남원 캠퍼스를 존치해 나가고, 의과대학도 폐교하지 않고 정상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교육부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한국사회진흥재단 등에 의뢰한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종전 이사 등이 제출한 방안의 컨설팅 결과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직원과 지역 사회 등 어떤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을 서남대 임의이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뉴스

안민석 의원 “진짜 실세는 최순실의 조카 장유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유진 씨가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최 씨의 조카, 즉 바로 위 언니인 최순덕 씨의 딸이 장유진”이라며 “저는 이 분이 가장 실세라고 본다. 최 씨의

대리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김철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장 씨를 오늘 당장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근에 이름을 장시호 씨로 개명했는데, 최 씨와 가장 긴밀히 연락하는 사람이고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장 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뉴스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